

[종합]

상위 10% 月평균 31만6천원
하위 10% 月평균 3만1천원

사교육비차 10배

“소득·학력 격차 대물림 가능성”

부유층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10배 이상까지 벌어졌다. 14일 통계청의 2006년 2·4분기 전국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31만6천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 3만1천원의 10.2배에 달했다.

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종전까지 10분위와 1분위 계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가장 컸던 것은 올 1·4분기로 9.9배였다. 10분위와 1분위 계층의 사교육비 격차는 2·4분기 기준으로 2003년 7.1배, 2004년 9.2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능학원비, 개인 교습비, 독서실비 등 사교육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교육비의 지출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또 10분위와 1분위의 10개 소비지출 항목 중 보충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격차가 8.3배로 가장 높아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이 이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2·4분기 10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격차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비지출 6.8배, 가구집기·가사용품 6.7배, 피복·신발 6.6배, 교양·오락 5.8배, 교통·통신 5.5배, 식료품 3.1배, 보건·의료 2.4배, 주거 1.9배, 광열·수도 1.8배 등의 순이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교육비 지출 규모가 반드시 학력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다”며 “저소득층의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赤 “쌀 10만t 대북 지원”

한안상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14일 수해를 입은 북한에 10만t 규모의 쌀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총재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피해 추산치인 3만~10만t에 대해 쌀 지원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10만t까지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체와 정부의 (수해 구호물자) 규모(약 200억)보다 훨씬 더 큰 규모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모두 합해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재는 “지원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통일부 장관에 이야기했다”며 “지원 규모를 이번 주 내로 정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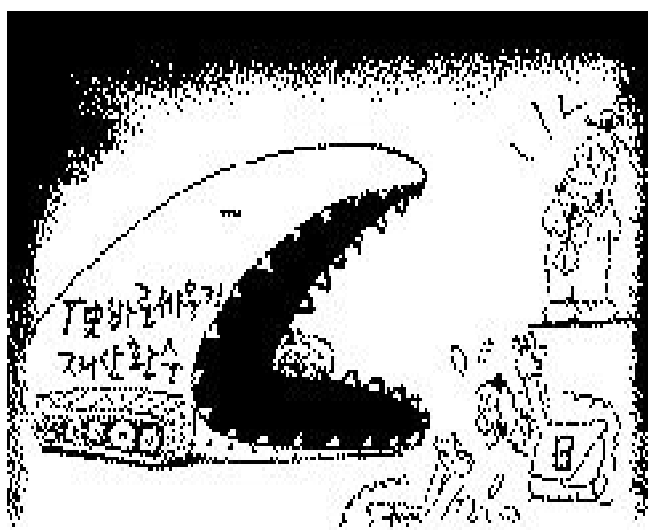
행자부 ‘전공노 불이익’ 공문 공무원 노조 강력 반발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공무원노조 가입 공무원들에 대해 각종 불이익 지침을 잇따라 하달하자 각 공무원노조 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여수, 순천 등 각 시·군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13일 ‘전공노 가입 공무원 불이익 조치 협조’ 공문을 각 시·도에 하달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포상을 배제하고 각종 해외연수 선발 대상자 선발시 제외토록 지시했다. 이에 앞선 3월에도 전공노 사무실 폐쇄, 전공노 자진 탈퇴 적극 독려 등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정부 방침 이행 실태에 대해 감사 부서와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미이행 지자체에 대

해서는 행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순천시장이 지침의 이행 방침을 밝히면서 총무과 소속 20여명의 공무원들이 전공노를 잇따라 탈퇴하는 등 공무원들 사이에 동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전공노 순천시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노관규 시장을 함의 방문, 조합원 탈퇴가 확산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욱 순천시지부장은 “1천100여 명의 조합원 중 특정과에서만 집중적으로 조합원들이 탈퇴해 외압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조합원 탈퇴가 확산될 경우 총력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빛日만평

- 김중두



‘괴물’은 영화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공무원, 자녀 입양땀 최대 14일 휴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최대 14일까지 입양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허용하고 육아휴직 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 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을 뒤 유산·사산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정토록 했다. 휴가 일수는 임신 16~21주 이내 30일, 22~27주 이내 60일, 28주 이상 90일이다. 다만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휴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직사회의 헌혈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헌혈을 하는 시간은 예비군 훈련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가’로 인정해줄기로 했다.

“여섯살 아이가 애 업고 구걸... 충격”

‘한국판 신들러리스트’ 美 조지 드레이크씨 광주 사진전 “사진 2천여점 호남사회복지관 기증”



한국전 참가 당시 찍었던 고아들의 사진과 미국·일본 등지에서 수집한 한국전쟁에 관한 자료를 모아 전시회를 마련한 조지 드레이크(76·George F. Drake)씨가 기증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전쟁 50년...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상처입은 아이들을 위해 행동했던 미군에 관한 행사가 없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의 인도주의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사진전시회이며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관련기고 17면> 14일 오전 광주시청 1층 로비에 ‘미군과 한국 아이들, 그 사랑의 이야기’ 사진 전시회가 개최됐다. 한국전쟁 당시 32통신 중대에서

소령으로 참전했던 미국인 조지 드레이크(76·George F. Drake)씨가 9년에 걸쳐 수집한 사진과 자료 2천여점이 공개된 것이다. 1950년 한국을 찾았던 그는 어느날 여섯살짜리 여자아이가 두살 동생들 등을 업고 음식을 구걸하는 장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그는 6개월간 미국에 한국의 전쟁고아를 도울 것을 요청하는 편지 1천여통을 보냈으며 부대원들의 성금을 모았고, 매주 20

시간을 고아들을 돌보는데 썼다. “상처 입고, 울고 있는, 짐이 없는 아이들... 인간적으로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한 아이들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전역 후 남미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드레이크씨는 1967년부터 웨스턴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학과 역사학을 가르쳤다. 지난 20년 동안 퇴직한 후에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이면’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바로 자신처럼 한국의 전쟁고아를 도왔던 미군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기록보관소와 일본 도쿄의 성조기 기록보관소 등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지난해 5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6·25전쟁 기간 미군은 400개의 고아원을 세웠고 5만4천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저는 전쟁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을 가져온 메신저(messenger)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전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 미군입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 시의회는 드레이크씨의 광주시 명예 시민 추대 소식에 대한 화답으로 14일 ‘광주를 기억하는 날’(Gwangju, Korea Appreciation Day)로 정했다. 드레이크씨는 전시회가 끝나면 전시자료 2천여점을 전시회 주관단체인 호남종합사회복지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광주 ‘민주의 종’ 광복절 타종

광주·전남 광복 61돌 기념행사 유공자 버스·지하철 무료 탑승 광복 6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민주의 종이 타종되고, 독립유공자들에게 민속박물관이 무료 개방하는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광복대 광주시장을 비롯 5개 구청장과 광복원 시의회 의장 및 5개

구의회 의장, 광복회원, 각 계 인사 163명은 15일 오전 9시55분에 광주공원 현충탑을 참배한다. 광주시는 이어 오전 10시 9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회관에서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갖고, 낮 12시에는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33회)을 실시한다. 이날 광복회원과 독립유공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시립민속박물관·우치공민동물원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전남도는 15일 오전 10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정종득 목포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광복회원,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갖는다. 담양군은 봉산초등학교에서 마을대학 축구대회를 가지며, 함평군은 독립운동가 일가 김철 선생 추모식을, 장성군은 삼서면민의 날 행사와 북이·북하면 면민 체육대회를 갖는다.

산행안내
▲청록산악회 대정사 우성구 도덕봉 8월16일(수) 07시30분 상무지구 새터에서 출발...
▲새우동산악회 충북 괴산군 대야산 8월20일(일) 07시 대야광동서동회관에서 출발...
▲김빛산악회 백두대간 16구간 조백산구간 고지현-북방 8월20일(일) 06시 영주체육관(동강) 주유점(리츠)에서 출발...
▲광주우모회 부부투어(영동-북방) 8월20일(일) 08시 대인동영림주차장(영동)에서 출발...
▲보리산산악회 덕유산(북-대동) 8월20일(일) 07시30분 영동회관에서 출발...
▲거북티마산악회 덕유산 송과산 8월20일(일) 07시30분 영동회관에서 출발...
▲무등산악회 정나영산 정정산 8월20일(일) 07시30분 영동회관에서 출발...
▲전남산악회 화양 대관산-천왕봉 8월20일(일) 07시 광주우모회관에서 출발...
▲광주전남산악회 지리산 반야봉 8월20일(일) 07시 광주우모회관에서 출발...
▲다들기(제4)요산요산산악회 지리산 8월20일(일) 07시 남광주하강교앞(영동)에서 출발...
▲요산산악회 지리산(삼봉산, 백운산) 8월20일(일) 07시 광주우모회관에서 출발...
▲광주신사량요산산악회 경남 거제현정사 8월20일(일) 07시30분 무등경기장우문수영장 앞 출발...
▲상무관광산악회 대마도산행 및 경남 9월 매주 목요일 출발(당일, 1박2일) *종말10월전 예약접수바람, 이연필수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1기]
개강일시 : 9. 5(화) 9:30
모집기간 : 8. 1(금) ~ 9. 5(화)
수업기간 : 9월 ~ 12월(4개월 15주)
수강료 : 210,000
모집과정인원: 1단계과정 오전반, 오후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오전반(매주 화, 목)09:30~12:30(3강좌)
오후반(매주 화, 목)14:30~17:30(3강좌)

7.9급 공무원, 경찰직, 중개사
서울시: 10월1일 932명 공채대비
선관위: 9월24일 100명 공채대비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40년 전국최고의 전통
노량진·광주·울산·타입 출강
청강후 등록(강의만점)
전남여고맞은편
광주동부서티
(062)222-5105
www.Chonnamgosi.co.kr

분양대행전문회사
분양대행 전문-분양이 인도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 개발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클럽-투자유망한곳을 찾고 계십니까?
광주·전남 공인중개사 협력채구성
분양! 청담과 상의하시면 같이 있습니다.
(주)청담 D & C
062)382-4984
상무지구 새터이웃빌 옆
청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담전화:062)381-0049
*광주권 아파트/토지/상가-건물-매물접수
*아파트 분양전 전문-분양대행매 상담반영
*아파트 부지 구함
*이주자 협의지역 구함
*필요하신 부동산 구매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상담 환영